

2025 Village Church

연례보고서

한글

503-643-6511

info@villagebeaverton.com

www.villagebeaverton.com





Contents



4	최규진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5	빌리지 카운슬 서신
8	제자훈련
9	DNA 사역
10	글로벌 선교
11	지역 선교
13	운영
15	목회 돌봄
16	예배와 예술
18	아프리카·아프리카계 미국인 헬로우십
19	아시아계 미국인 헬로우십
20	중국 헬로우십
21	히스패닉 헬로우십
22	일본 헬로우십
23	한인 헬로우십
25	어린이 사역부
26	청소년 사역
27	청년부 사역
28	형제 사역
29	자매 사역
30	시니어 사역
31	2025년 재정 보고

최규진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살아가기 (Prophetic Imagination)” 라는 주제 아래 2025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제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사다난했고, 또 많은 변화들과 불안정적인 상황들이 특별히 많았던 지난 한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지 함께 고민해보고, 노력해왔지요. 요한계시록, 창세기-출애굽기, 구약의 선지서들을 함께 읽어보며 말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 왕은 비록 그의 주변 환경이 혼돈스럽고, 불안정하며, 주변에서는 원수들이 그를 위협하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곧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단순히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여전히 신실하시며 아름다우신 임재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주저 앉지 않고,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며,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 말이지요. 그런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며, 공동체적 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해동안 빌리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한분 한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많은 도전들 가운데서도 신실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오신 한분 한분의 삶을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포기보다 희망을 선택하고, 낙망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좌절보다 웃음을 선택하고, 고립보다 공동체를 선택하며, 각자의 선호보다 하나됨을 선택하고, 불평보다 예배를 선택해온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담대하고, 용기있게, 신실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동안 우리 공동체와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오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언자적 상상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약속된 바와 같이 내일의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계속해서 희망과 기쁨으로 삶을 경작해나아가는 우리 빌리지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Paul Choi

Lead Pastor

빌리지 카운슬 서신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빌리지 사역 전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리지에 맡기신 사명과 정체성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봅니다.

-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적이며 다문화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격려가 되고 설레는 일입니다. 이 빌리지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은혜는 모든 세대와 모든 교제 안에 존재하며, DNA 그룹과 다음 세대 사역, 장년 사역, 그리고 공동체 돌봄 사역을 통해 지역과 열방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리지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직원분들과 봉사자분들의 헌신을 통해 사역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해 주신 수많은 빌리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과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사역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항상 신중하고 헌신적입니다. 빌리지의 스태프분들은 단순한 교회 직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예배하는 동역자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설교 사역을 맡으신 목사님들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교를 전하시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려운 일을 마치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빌리지 공동체를 예배 가운데에서, 채플 예배의 각 테이블별 나눔 시간에서, 생츠퍼리 예배의 환영의 시간 에서, 또는 다양한 사역 참여를 통해 경험하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선교적·다문화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선언문에 나타난 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즉, 시대를 넘어 예수님의 삶에 이끌린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Missio Dei*)을 분별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언약적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David Moxley

Village Council Chair

전반적인 사역



제자훈련

봄에는 Brant Himes 박사님께서 “본회퍼와 제자도의 삶”이라는 6주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매주 우리는 온라인으로 성경과 Life Together 책을 가지고 고독, 공동체, 경청,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는 나눔과 같은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본회퍼의 비전을 우리 시대적 상황과 조명하며 깊이 고민했고, 그의 명확함과 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굳건한 제자를 갈망하는 세상 속에서, 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Karl Barth의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라는 권면의 무게와 의미를 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뿌리를 두면서도 세상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면서도 현실적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하나님께서 이 수업을 통해 우리를 영적 공동체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다양한 제자 양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Abide는 남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에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일요일 아침 예배를 넘어 신앙의 리듬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Practicing the King's Economy 프로그램에 깊이 참여하며,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ible Cohorts는 배움과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환경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감과 호기심을 키우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삶의 자리와 함께 자라간다는 하나님의 상기하심을 경험했습니다.

34 baptisms
across many
generations

우리는 성경과 기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DNA 그룹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함

올해 우리는 DNA 그룹 안에서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관계적·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리더와 그룹들이 세워졌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걷는 헌신이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1~2월에 열린 결혼 컨퍼런스에는 20쌍의 부부가 참여하여, 결혼 초기, 자녀 양육, 중년의 삶, 또는 수십 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살아나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부부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배우자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는 새로운 우정의 장이 되었고, 참석하는 다른 부부들과 알아가는 연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후속 자료와 지원도 제공되었으며, 한 커플에게는 결혼 예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올가을, 세 개의 새로운 청년 DNA 그룹이 생겼으며 청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향한 새롭고 진지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와 기존 리더들을 세우셔서 겸손과 확신으로 촉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각각의 처음 세워진 리더분들은 리더십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 DNA 그룹 리더들이 자신들의 그룹에 깊이 헌신하며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NA 그룹 리더들은 경계를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각 그룹의 울타리를 넘어 확장되어, 이주민 캠프 식사에 손님을 맞이하고 섬기며,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증인으로서 늘 마음을 열어 왔습니다. 그들의 본보기는 이 사역을 튼튼히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새로운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열어 가실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선교

하나님께서 빌리지와 우리의 선교 파트너들을 통해 여러 지역과 다양한 사역에서 놀라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계 선교 참여는 전도에서 공동체 변혁, 어린이 사역에서 노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역의 폭넓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오랫동안 헌신해 온 곳에 새로운 파트너와 후원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가 넘칩니다. 동시에 이 현실은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섬김이 필요한 새로운 사람들과 지역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올해는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빌리지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서 이루시는 사역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여준 신실한 반응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빌리지 성도들은 꾸준히 참석하여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격려와 진정한 돌봄을 나누었고, 선교사분들과 함께 사역의 동역자로서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빌리지 공동체 안에서 세 가정이 선교사의 부르심에 헌신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정은 이미 파송을 받았고, 또 다른 가정은 파송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세 번째 가정은 장기적 선교 비전을 품고 훈련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멕시코에서 학업 중인 신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교회를 섬길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분이 이미 행하고 계신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은 단순히 도전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기쁨과 큰 의미, 참된 영광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25 missionary families supported

지역 선교

지난 한 해, 빌리지 지역 선교 사역은 자원봉사자분들과 지역 이웃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소중한 만남과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역 리더들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이웃들에게 빌리지는 건강 검진을 해 주는 곳, ESOL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된 무료 시력 검사와 안경제공기관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빌리지 의료 클리닉에서 자원봉사하는 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 빌리지에 한 달간 열리는 클리닉의 환자로 방문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검사실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도वाद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간 채혈사로 일했고, 오리건에서 채혈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경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6000+

Pages of paperwork

filled out by the medical clinic

71

Patients

received free vision exams

300+

Patients served

at the medical clinic

60

Free Prescription Glasses

given to patients

우리는 그를 자원봉사팀에 맞이하게 되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종종 환자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ESOL 사역에서는 분명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환기 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ESOL 디렉터 Teresa Fisher-Huynh을 우리 팀에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빌리지 카페를 방문한 테레사는 ESOL 자원봉사자 토마스와 론을 만나, 남편과 함께 베트남에서 영어 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공동체를 강조하며 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로 다시 인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을 작은 그룹처럼 운영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나누도록 격려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목사님들과 연결되었고, 일부는 1년 동안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른 학생들은 빌리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0

Regular Volunteers

in ESOL and Medical Clinic

5

ESOL Classes

offered to our community

52

ESOL Students

welcomed onto our campus

빌리지 지역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주변 지역 이웃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영

우리의 캠퍼스, 시스템, 재정을 잘 관리하며 계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오후, 교회 문이 닫힌 후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빌리지 시설팀에서는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간절함을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사랑하는 이를 기리는 묘지를 방문하며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묘지를 관리해 주는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설팀에서는 이것이 자원봉사자들과 시설팀이 같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고,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찾아오셨을 때, 때마침 같은 시설팀 분이 문을 열어드렸고, 감사 카드를 전달하며 신실한 팀원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시설 및 재정팀의 헌신적인 역할을 잘 보여 줍니다. 매주 헌금을 세는 자원봉사자들부터 주말마다 조경을 돌보는 팀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신실하게 섬기며 캠퍼스 사역을 돕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현대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50 year of warranty on the new South Village roof

40 external doors welcoming the community

7 buildings with 102,000 square feet of indoor space

13

acres of
landscaping
and parking

52

meetings
rooms to
gather in
community

1

purpose:
To honor
Jesus

자원봉사자, 계약업체, 스태프가 함께한 놀라운 공동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마칠 수 있었고, 캠퍼스와 자원을 신실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16년에서 60년 이상 된 일곱 개 건물로 이루어진 캠퍼스에는 많은 개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헌금 덕분에 사우스 빌리지 지붕 교체와 주차장 내 가뭄에 강한 나무 심기가 가능했습니다.

빌리지의 자주 이용되는 공간들을 개선함에 있어 환대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캠퍼스 외부 표지판을 교체하고 페인트를 새로 칠했으며, 특별 헌금 덕분에 주차장 진입로의 하드스케이핑과 청소년 건물의 오래된 카펫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Yamhill 룸은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스태프와 소규모 모임을 위한 따뜻한 “거실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빌리지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더 쉽고 합리적인 Church Center로 바꾸어, 어린이 체크인, 헌금, 룸 예약 등 다양한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장기적 비용 부담이 있던 IT 지원과 HVAC 유지보수 계약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몇 차례의 유산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례 없는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덕분에 2026년 건물 대출을 최적의 금리로 재융자할 수 있도록 연말에 24만 달러의 잉여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빌리지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해 돌봄과 꾸준한 방문,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제자 중심의 목회 돌봄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 돌봄

올해 우리는 병과 상실, 삶의 큰 전환을 겪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 돌봄의 신실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정기적으로 가정과 병원을 방문하고, 가족의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식사와 교통 지원을 돕고, 슬픔과 불안 가운데 영적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결혼 전 상담, 결혼식, 주일 아침 목회적 돌봄을 통해 교회 전체를 섬기는 사역도 계속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는, 성도들이 감사와 열린 마음으로 돌봄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 방문과 기도, 작은 봉사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는 이 사역이 장차 빌리지를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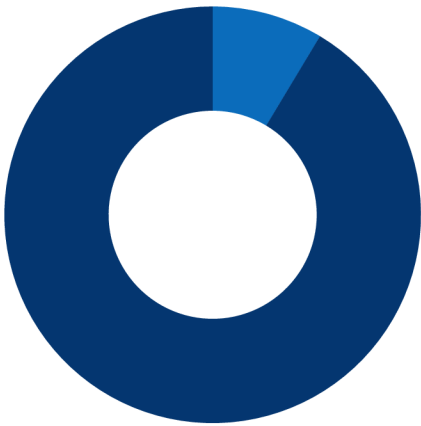
목회 돌봄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회복력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마다 자원봉사자들과 돌봄 팀원들은 자신의 짐과 건강 문제, 가족의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신뢰하며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걱정 대신 기도를, 성급한 해결책 대신 조용한 동행을, 자기 보호 대신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집과 병원, 삶의 어려운 전환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간 그들의 헌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조용한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동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더할 때, 무겁게 느껴졌던 자리에서도 겸손이 자라고 희망이 싹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방문, 한 끼의 식사, 한마디의 위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돌봄의 순간에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워 가고 계십니다.

예배와 예술

새로운 분들이 예배 사역에 참여하고, 빌리지 안에서는 새로운 예술가 공동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예배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발견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은 큰 기쁨이자 감사한 특권입니다. 이 모습은 모든 성도의 제사장적 직분을 분명히 보여 주며, 그리스도의 몸 된 모든 지체가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기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잘 나타냅니다.

예배 사역을 이끄는 스태프에 여러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적인 자원봉사 팀의 꾸준함과 신실함으로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팀은 섬김의 리더십 정신을 실제로 보여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어도 기꺼이 자신의 선호를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무대 위와 무대 뒤에서 이뤄진 이러한 이타적 헌신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되심을 확신하며, 이들의 헌신이 주일 아침 예배의 든든한 초석이 됨을 느낍니다.



100+ Villagers Serve on Sundays
1160 Average Sunday Attendance

지난 한 해 동안 예배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빌리지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에는 거의 100명의 성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그중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봉사하거나 참여했습니다. 참여 영역은 성찬 봉사, 개인 간증 나눔, 예배팀에서 노래와 악기 연주, 무대 뒤 기술 지원까지 다양했으며, 모든 참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The background image shows a large, well-lit indoor space, likely a community center or gymnasium, filled with people. The room is decorated with numerous colorful Mexican papel picado banners hanging from the ceiling and walls. The banners feature various designs, including suns, flowers, and geometric patterns in colors like yellow, blue, orange, green, and red. In the foreground and middle ground, several round tables are set up, some with white tablecloths and others with blue or green ones. People are seated at these tables, engaged in conversation and eating. The floor is made of light-colored wood. The overall atmosphere is festive and communal.

문화별 헬로우십

아프리카·아프리카계 미국인 헬로우십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헬로우십(AAAF)은 문화의 다양함을 기뻐하며 서로를 돌보고, 빌리지 전체 공동체와 연합하여 사역으로 섬기는 생동감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AAAF는 처음으로 이주민 캠프에서 식사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아시아계 미국인 헬로우십, 히스패닉 헬로우십, 그리고 빌리지 공동체의 여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섬길 수 있었던 점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포장하며, 음식을 운반하는 모든 과정이 배움과 교제, 그리고 팀워크가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경험은 깊은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함께 예배드렸고, 이는 언어와 문화, 국적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드러내는 강력한 고백이었습니다.

AAAF 공동체 안에서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짐을 함께 지고 격려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향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열매 중 하나로, 빌리지 공동체를 초대하여 ‘준틴스(Juneteenth)’를 신앙과 자유의 축제로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미국 역사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신앙인들의 강력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성경 해석이 사용되던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선포하는 참된 해방의 복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억누르던 자들의 거짓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살아 있는 믿음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약속을 향한 그들의 흔들림 없는 신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도전이 되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AAAF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모습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섬기는 사역과 생동감 있는 예배, 그리고 사랑 안에서 동행하려는 더욱 깊어진 헌신을 통해 AAAF는 하나님의 화해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며, 2025년에 심겨진 씨앗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우리의 교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빌리지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더 넓은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흘려보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헬로우십

빌리지의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성도들은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의 시기와, 연로하신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더해지는 역동적인 인생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DNA 그룹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각 그룹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지속적으로 분별하며 헌신적으로 섬겨 왔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빌리지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룹을 확장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는 주일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DNA 그룹 리더인 데이비드가 말하길 “우리의 교제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독립과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기쁨과 어려움을 서로 도우며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는 또 두 명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게 되었고, 큰 라이벌전인 오하이오와 미시간 경기 때에도 여전히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Our bonds of fellowship continue to deepen. We continue to help each other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empty nesting and getting older. [Our group] sent two more kids to college, and [we] still keep it friendly even during the big Ohio vs. Michigan game. ”

교회 안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헬로우십(AAF)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올해에는 주일 예배 사역 가운데 헌금 위원(스튜어드)으로 섬기는 헌신된 봉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이 기꺼이 손과 발이 되어, 기도와 예배의 응답으로 드러지는 모든 헌금이 잘 모아지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식사 사역, 자매 사역, 형제 사역 등 다양한 사역에 개인적으로 헌신하며 시간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언약 멤버가 된 한 성도는, 빌리지가 자신과 남편에게 신앙의 집이 되었던 경험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다음 단계였다고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섬김의 자세가 AAF 성도들 가운데 살아 있음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아시아계 미국인 헬로우십은 헌신적이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올해 우리는 중국 헬로우십이 빌리지 공동체 전반과 더욱 깊이 연결
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중국 헬로우십

1년 전, 우리 형제 중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방문하신 시어머니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더 큰 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 아이디어가 점점 발전하여, 이제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중국어로 실시간 통역해 드리고 있으며, 빌리지에서 사용되는 여러 문서도 번역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헬로우십의 많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선한 일로 격려'하며, 모두가 함께 기꺼이 협력해 온 모습을 보면서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두 성도가 신앙을 갖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누렸고, 몇몇 성도들이 다시 교제에 돌아오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충분한 성장을 허락하셔서 리더십 팀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성도와 '신규' 성도들 모두 성경 지식이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정기 모임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와 빌리지 문서를 번역하고, 카페에서 봉사하며, 음향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나누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헌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헬로우십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13)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 형제자매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훈련은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 가장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역은 이주민 캠프입니다. 10주 동안 우리는 농장 노동자들을 직접 섬기며, 아낌없이, 그리고 희생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음식과 의류,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명하고 자비로우며 능력있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헬로우십 사역 팀과 함께 섬기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세 가지 중요한 영역—가정, 영적 형성, 그리고 전도적 섬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 **가정:** 결혼 워크숍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을 강화하고, 성경적 원리를 삶에 심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 **영적 형성:**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DNA 그룹을 조직하고, 훈련된 리더와 주간 성경 공부, 그리고 실천적·교리적 주제를 안내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전도적 섬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과 희망을 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양한 전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계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 함께 걸어가며, 적절한 시점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소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신 한 해였습니다.

일본 헬로우십

첫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 안의 기도와 교제가 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삶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만남을 통해,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파송됨의 목적과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빌리지의 작은 한 헬로우십이자 공동체로서, 또한 이미 임재하시고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올해 일본 헬로우십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격려받으며 새롭게 회복되는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올해의 주제 '예언자적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전과 격려를 주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는 친구에게 정성껏 식사를 건네고, 점점 더 분열되어 가는 사회 한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다리가 되기로 결단하며,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에 눈뜨는 여정이었습니다.

한인 헬로우십은 담당 목사님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부지런히 섬기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인 헬로우십

한 해의 시작은 일주일 동안 이어진 새벽 기도와 예배의 여정을 통해,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헌신하는 강렬한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깊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깊이 집중했던 시간은 한 가지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선 목사님의 비자가 이번으로 두 번째 거절되면서, 우리의 기다림에는 이전보다 더 큰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헬로우십은 이 도전에 반응하여 그들의 영적 굳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낙심하기는커녕, 공동체는 놀라운 회복력과 변함없는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도전은 외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한 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향한 갈망은 수요 모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산상수훈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공부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풍성한 토론과 개인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선교 동역자를 위한 월례 모임과 DNA 그룹 리더 모임도 꾸준한 참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일 모임에서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테이블별 토론 방식으로, 이를 통해 DNA 그룹 리더들에게 충분한 안식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주일 모임에서의 교제 경험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테이블별 토론은 성도들 간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과 참여 면에서도 기대 이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형식은 보다 상호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고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A dark, low-key photograph of a group of people in a meeting or workshop. Several individuals are visible, with their hands placed on the shoulders of others, suggesting a supportive or collaborative environment. The lighting is dim, with some highlights on faces and hands. The overall mood is serious and focused.

세대별 사역

어린이 사역부

2025년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선택을 바로 세우며, 삶의 목적과 계획을 향한 비전을 키워 가도록 제자 삼는 한 해였습니다

“
인생은 퍼즐 같아요! 오늘은 모든 것이 평안하다가
도, 다음 날 갑자기 누군가가 팔에 바늘을 꽂을 때
가 있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

이 아이의 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험을 소화하고 있던 2학년 학생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삶이 퍼즐과 같다는 수업을 들은 뒤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경 진리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이러한 배움의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키즈 사역에서는 단 한 번의 순간이 아니라 수많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아하'하며 깨닫는 배움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경을 읽도록 이끄는 실천들도 포함됩니다.

어린이 사역에서 섬기는 기쁨 중 하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이자 친구로 알도록 이끄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유치부, 유아부, 유치원, 초등부에서 봉사하는 자원 봉사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섬기고,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매주 저는 특정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며, 부모님과 가정, 아이들 그룹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고민하는 리더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 그들의 시간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0 youth involved
in ministry

30 youth mentors
serving

39 middle school
students
attended
JaeJah Dias
missions camp

71 students at
Youth Camp,
the highest
attendance
ever

청소년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젊은 제자들 안에 진정한 열정을 더욱 풍성히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과 공동체, 서로를 제자로 삼는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는 데 도움을 주는 리더들을 세워 주고 계십니다.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을 시작한 두 번째 해, 13명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끌며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설교자들을 양성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과의 경험,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7명의 학생이 설교를 전했고, 최소 20명의 학생이 예배 인도를 위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아리를 이끌며 또래들에게 예수님을 나누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올여름 선교 캠프 이후 몇몇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또래들과 함께 봉사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늘 서로를 이끌고 제자로 삼는 청소년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끌며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보여 주는 믿음과 리더십, 그리고 주인의식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청년 사역

11월에 열린 YAM Friendsgiving Potluck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빌리지 공동체의 22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새롭게 합류한 분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여섯 개의 청년 DNA 그룹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으며, 관계를 더욱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이름과 가져온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고, 식사 후에는 보드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보드게임을 즐기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고,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자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6 Young Adult specific DNA Groups

우리 DNA 그룹과 YAM 리더십 팀에서도 성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다섯 명의 새로운 DNA 그룹 리더가 청년 중심 그룹 세 개를 추가로 세우며, 공동체 성장을 향한 영적 갈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YAM 리더십 팀의 의견에서는 목회자와 성인으로부터의 멘토링과 제자 훈련에 대한 열망이 드러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YAM 공동체 모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된 리더십 팀은 사역과 행사 지원에 헌신하며, 이러한 성장을 잘 보여 줍니다. 팀의 독특한 다문화 구성 또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동료 를 섬기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역을 감당 하는 팀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적 교회 안에서 계속 성장하며, 교회 안팎의 직장, 가정,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선교적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법을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사역(YAM)은 끊임없는 정보 교류와 변화, 불안정함으로 가득한 세상과 달리, 공동체와 연결, 영적 형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제 사역

올 여름 우리는 따뜻한 수요일 저녁, 삶의 연령대가 다양한 약 16명이 함께 이주민 캠프에 모였습니다. 하늘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캠프를 가로지르는 따스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풀밭에 서서 하루 종일 발에서 일한 분들을 섬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착하자 히스패닉 헬로쉽은 활기찬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친 얼굴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줄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진심 어린 말—‘de nada’, ‘Dios te bendiga’를 건네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함께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이 사역이 작지만 변함없는 헌신으로 복음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한 달 이어진 형제 조찬 모임에서는 대화가 깊어지고, 우정이 맺어지고, 굳건해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DNA 그룹은 가정, 온라인, 커피숍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모이며 성경과 삶,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는 기도와 격려, 솔직한 나눔으로 이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걸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형제들이 섬기는 리더로서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없이 준비와 정리를 도우며 기꺼이 손길을 내어 봉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형제들이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을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어가는, 변함없고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우정, 봉사, 지속적인 관계적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교회 전체를 든든히 세우는 형제 공동체입니다.

자매 사역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올해 우리 여성들 가운데 이 진리가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50+ events offered

월례 모임과 기도 시간, 교제 식사,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화적·관계적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고, 신뢰가 깊어지며, 자매들 사이에 점점 더 하나 된 마음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매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심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진과 비비안의 사랑 어린 인도로 진행된 우리 자녀가 어린 어머니들의 소그룹, Poppy가 이끄는 성경 공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매달 성실히 준비하며 헌신과 사랑으로 사역을 섬기고 기도하며 이끌어 준 각 리더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문화와 세대, 배경을 가진 자매들의 하나됨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리지 시니어들은 교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적이고 다문화적인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

올여름 우리 성도분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랑하는 남편에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DNA 그룹과 특히 DNA 그룹 리더는 신속히 대응하여 목회 돌봄팀에 연락하고 남편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문은 환영 속에 이루어졌으며,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가족은 딸 중 한 명의 자택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 DNA 그룹과 코이노니아 반을 초청했습니다. 빌리지와 거리가 있었음에도 여러 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들은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삶의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주님을 섬기기 어려워질 때, 시니어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니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며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끈기와 힘, 긍정적인 마음으로 빌리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례 오찬 모임은 여전히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활기찬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반은 리더십 변화를 경험했으며, 톰 그레이가 성실하게 사역을 수행하며 제임스 그린우드에게 바통을 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정과 병원을 방문하며 빌리지 시니어들과 그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이는 빌리지까지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교회 공동체와의 사랑 어린 연결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025 Village Financials

We are called to give generously and cheerfully out of our love for God and our neighbor. We give our whole selves (talents, gifts, time, and finances) in worship of our Maker who is the true owner of all that we have. We give as an eternal investment and believe that God rewards us as we participate with Him in His mission.

For more on how to give, our church loan balance, or financial updates throughout 2026, visit our website below,
www.villagebeaverton.com/give



\$2,790,619

Ministry Fund Income for 2025

Includes \$2,675,186 gifts + \$115,433 facilities fees

\$2,757,364

Ministry Fund Expenses for 2025

533

Annual Giving Participant Households

\$930,254

2025 Giving to Funds Outside the Budget

Includes \$91,430 Grace Offering
+ \$159,331 Spring Fundraiser
+ \$434,905 Ministry Reserves
+ \$244,588 in other preferred gifts
like short-term missions, building fund,
and staff love gift.

